

이기웅의 영혼도서관



'책의 수도원'을 빛낸 '자서전' 이야기

종이책이 위기를 맞았다고 걱정한다. 전자책이 상당한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출판환경의 근본이 소용돌이 치면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독서환경뿐 아니라 그 일에 종사했던 이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소용돌이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당연한 일이다. 책의 자자 생산시설과 그 시스템, 곧 벌목업(伐木業)과 펠트회사와 제지회사들 그리고 이 거대한 생산의 고리와 먹이사슬들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출판사는 말할 것 없고, 인쇄인크 회사를 비롯한 종이책의 여타 가공시스템과 인쇄소와 제책회사들, 그리고 도서 유통회사와 서점들이 도미노처럼 넘어지고 있다. 예견된 일임에도,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날벼락 맞은 듯이 아우성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종이책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예상돼 왔고, 그 위기는 생계의 문제와는 당초부터 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책이 호황일수록, 곧 책이 잘 팔려 인간의 욕망을 채워 주고, 채워진 인간의 욕망이 다시금 새로운 욕망을 부추기면서, 종이책의 위기는 가속화해 왔다. 책을 왜 만드는지,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나 명분도 아예 상실한 채.

이런 나의 관찰은 과연 역설일까? 아니다. 책의 근본을 바로 보자. 책은 장사의 목적으로 만들고 글 쓰고 하는 일이 올바른가 생각해 보자. 출판이 생계 유지를 위한 직업이나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위기라면 위기인 것이다.

이제 만연해 버린, 책을 향한 우리들의 비뚤어진 양식을 끌어켜볼 때가 되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아우성치기에 앞서, 이런 오늘의 출판과 책의 현실은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오래 전부터 나는 종이책을 향해 들려오는 불길한 예언의 소리를 알아챘다. 그 소리가 울려 올 때마다 '영혼도서관'이라는 대안을 가슴 한켠에서 썩을 놔두고, 그리고 그 썩을 키워 왔다. 우리에게 가장 선(善)하고 값진 책을 만드는 일이 책 만드는 자의 소임인 대신, 선하고 값진 책이란 과연 어떤 책일까를 궁리해 왔다.

오늘 성찰 끝에, 나는 그것이 '자서전(自敍傳)'임을 깨닫는다. 자서전이란 한 개인이 삶의 여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성찰의 산

물이다. 그 삶이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진실된 성찰의 기록이기에, 그 어느 책보다도 진정성 있는 책일 것이다. 그야말로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선하고 귀한, 가장 값진 책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시대에 출판되고 있는 자서전들은 과연 어떠한가. 위선과 허영과 거짓으로 가득한 뿐 아니라, 말(言語)을 다루는 전문적인 책이 부족한 책이 대부분이어서, 그나마 담고 있는 내용미자 훼손하는 꽂이다. 잘 만들어진 책을 비교해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일이고, 말과 글과 책의 근본을 아는 이라면 구구한 설명이 불필요한 이야기이다.

굳이 '자서전'이 아니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잘 만들어진 책이라면, 참된 자서전의 가치와 진실에 다를 바 있겠느냐는 게 나의 생각이다. 나의 '영혼도서관'은 바로 이 같은 책을 기획하고 만들어, 이를 찾는 도서관을 말한다.

누구든 영혼도서관에 등록을 하면, '참된 책'에 관해 성찰하고 궁리하는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참된 책을 향한 진리를 스스로 터득해 나간다. 다시 말하면, 참된 책의 가치를 터득한 사람만이 책을 만들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책의 수도원(修道院)'인 셈이다.

책의 수도원에서 수련된 회원들은 평생을 자신의 자서전을 써 나간다. 쓰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기 위해 쓴다. 이제 참된 자신의 기록을 하나님과 나누는 동안 그의 인생에는 크게 변화가 오고, 그는 참된 삶을 영위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글쓰기와 책 만들기는 깨닫는 자의 뜻인 것이다. 이런 책 외에도, 우리 인류사(人類史)에 빛나는 기록문화재를 곧 '독민심사·난중일기·백범일지' 등과 같은 기록들과 미래의 기록문화유산이 될 소중한 기록들을 다시 꼼꼼히 가다듬는, 곧 책을 염하는 '염소(臉所)'이기도 하다. 이런 귀중한 문화재들이 장삿속으로 들끓는 시장바닥에 맡겨져 있다면, 어찌 온당한 일이겠는가.

'책의 수도원'을 세우는 첫 시험 장소로 헤이리 예술마을을 택했다. 이곳에 수도원 같은 아름다운 영혼도서관을 짓는다. 우리 시대 최고의 건축가 조병우씨에 의해 재능기부되었고, 설계가 거의 돼 간다. 책 세상에 놀라운 이적(異蹟)을 보게 되리라.

〈열회당 대표〉

종교칼럼



단풍의 속풍경

방 강튼
원불교 나주교당 교무

윗동네로부터 단풍 물결이 내려오려 한다. 산천이 팔레트로 물드는 풍경이 펼쳐지게 된다. 다들 이 드라마 같은 장관을 보기 위해 삼삼오오 호호락락(好好樂樂)하며 산으로, 산으로 떠날 채비를 한다.

낙엽은 나무는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월동하기 위한 영양분을 부지런히 비축한 뒤에 몸을 가볍게 비우는 것이다.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자 잎자루 끝에 잎이 떨어질 수 있는 장치인 펠

려로 영향을 주면서 함께 진화하여 적응한 공진화(共進化)다.

어찌 이 가을에 산천의 초목만 물들겠는가? 사람도 물들고, 사회도 물들고, 마음도 관계도 그리고 짙음도 늙음도 물들 것이다. 청춘의 이면을 보면 밝고 화려함 뒤에 치열한 고충이 도사리고 있다. 늙음의 뒤안에는 곱게 나아 풀의 건너에 인생의 회한과 아픔이 때문이다. 사회의 거리 앞 화려함과 풍성함 뒤에는 어두움과 치열한 경쟁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다. 삶의 의지가 있다는 의미다. 인생을 단풍처럼 물들일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 단풍빛깔이 나무의 의지표현이라면 우리 인생의 주름과 짙음의 경계는 바로 삶의 의지다. 경계에 대한 적응력, 주어진 경계에 대한 활동성, 이것이 바로 삶의 의지다.

웃으며로부터 내려오는 단풍친구를 맞이하여 산으로 산으로 가봅시다. 자연의 팔레트에 내 단풍도 한 점 찍어 넣고 단풍의 속 풍경으로 들어가 볼시다.

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화려한 뒤의 치열한 적응의 진실을 알려주고 있다.

원불교의 교조이신 소태산 박종빈 선생은 "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는 동포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고 설파하신다. 여러 직종의 사람들 그리고 동물, 식물이 다 동포라는 것이다. 서로 경쟁하지만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다. 함께 진화하는 공진화의 존재다.

온 천지는 유풍불구 물들이는 이 계절을 감상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나무와 곤충들이 치열한 삶을 사는 모습을 읽을 필요가 있다. 너도 참으로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나만 다 좋을 수도 없고 너만 다 좋을 수도 없는, 서로 적응하며 공존할 수밖에 없는 치열한 역동성이 있다.

웃으며로부터 내려오는 단풍친구를 맞이하여 산으로 산으로 가봅시다. 자연의 팔레트에 내 단풍도 한 점 찍어 넣고 단풍의 속 풍경으로 들어가 볼시다.

기고

도서관은 정보지식사회의 핵심 인프라

김 삼 철
광주시립도서관장

최근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를 방문했다. 광저우는 중국 남방 제1의 상업도시이며 문화도시로서 광주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저우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세계 31개 도시의 도서관을 초청해 올해 개장한 도서관을 자랑했다. 참으로 부러웠다. 우리 돈으로 2000억원을 투자해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건물 두 개를 연결해 광주시청만한 규모의 도서관을 지었다.

나트륨 함유량 많은 컵라면 스프 조금만 넣으세요

야근 하거나 보통 때 집에서도 출출할 때 컵라면을 자주 먹는다. 바쁜 직장인, 강의시간 틈내서 먹는 대학생들, 어린이 등 우리나라 국민에게 컵라면이라는 존재는 심심풀이 땅콩처럼 부담없이 먹는 간식이지만 사실상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간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난히 짜게 먹는 식습관이 항상 문제다 되고, 짜게 먹는 습관은 곧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해서 걱정거리이기도 하다.

얼마 전 보건당국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

바로 도서관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지식정보사회다.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가는 견인차는 상상력과 창의력이다.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은 책 속에 있고 독서에서 나온다. 책이 보관되어 있고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은 도서관이다. 따라서 정보지식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바로 도서관인 것이다.

그렇다면 책을 읽는 시민이 많을수록,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많은 지역은 지식정보사회에서 미래의 풍요로움과 지역민의 행복이 보장될 것이다. 한 사람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인간의 삶의 패턴이 바뀌고 인류 역사가 변하고 있다.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장 훌륭한 말이 있다. '오늘날의 나를 만든 것은 바로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다'라는 빌 게이츠의 말은 이를 응변하고 있다.

우리 학창시절에는 '책 속에 길이 있고 뜻이 있다.'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라는 말이 있다.

람들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짠 컵라면을 짜지 않게 똑똑하게 먹는 요령은 무엇일까.

첫째는 김치의 짠맛이면 컵라면을 충분히 간에 맞춰 먹을 수 있으므로 김치가 있다면 컵라면 스프는 절반 이하만 넣는 것이다.

둘째는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일은 절대로 삼가한다. 국물의 짠 나트륨을 100% 다 드리기 때문이다. 김치에 함유된 나트륨 함량 또한 장난 아니라는 것도 다 아는 일이다.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나 당뇨, 노출증, 짠장마비 등을 일으키고, 이런 성인병이 들어나면 병원 환자가 늘어나 건강보험료를 높여내게 되고, 결국 이는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성해·광주시 서구 벽진동

을 말이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지금은 자신의 경쟁력을 기르고 지역사회에 발전의 소스를 찾고 시민 행복의 단초를 열기 위해서 독서가 더 필요하다.

하루가 다르게 진보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시간을 단축하고 공간을 뛰어넘는 것을 가능케 하여 인류 삶의 양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문화와 연계되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양식을 송두리째 바꿔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천 소스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책 속에 있고 도서관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광주의 어머니들은 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가족과 함께, 도서관에서 와서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책 속에는 길이 있고 뜻이 있음은 물론이고, 이제는 미래의 부와 풍요로움을 구가할 수 있는 방도가 있기 때문이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건, 민족, 민족 등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2-4918
e-mail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2009년 10월 24일, 서울의 밤 공기는 쌀쌀함을 느낄 정도로 차가웠다. 잠실별에서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7차전이 열리고 있었다. 상대는 기아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 7전 4선승제의 한국시리즈에서 양팀은 6차전까지 3승 3패로 호흡을 맞이했다. 이날은 승부의 종지부를 짓는 운명의 마지막 경기였다.

타이거즈는 와이번스의 선발 글로버의 구위에 놀려 5회까지만 1회에 3점으로 차이를 벌렸다. 6회초에 또 다시 2점으로 차이를 확장했다. 이어 7회에는 3점으로 확장했다. 최근 반려동물의 확산으로 동물병원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애완동물 진료에 대한 제도가 조기에 정비되지 않는다면 불공정한 진료 관행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최근 수의사 차원에서 진료비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지지부진하다.

주무부서인 농림식품부가 나서야 한다. 애완동물 진료비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진료 세부별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소외된 가을야구

도로 아침이면 LA다저스의 경기를 보고 밤에는 국내야구를 보는 맛에 끝나는 것이다. 어느 해보다 볼거리가 많은 올해 가을야구를 보면서도 하전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타이거즈 팬들의 상실감은 누가 제워주나.

도로 아침이면 LA다저스의 경기를 보고 밤에는 국내야구를 보는 맛에 끝나는 것이다. 어느 해보다 볼거리가 많은 올해 가을야구를 보면서도 하전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타이거즈 팬들의 상실감은 누가 제워주나.

/정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 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创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자·자·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222-4918 경제부 2200-663 <F A X 222-8005>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6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편집국외내 222-4918 체육부 2200-697 경기부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1> <F A X 02-773-9331>

편집국외외내 222-4267 사무부 2200-571 <F A X 02-773-9331> <F A X 02-773-9331>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